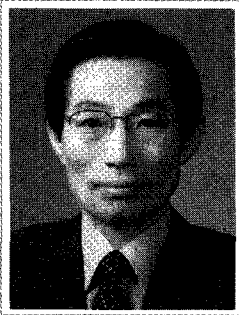


개회식

# 원자력 기술의 세계화와 국제 협력 강화

최수병

대회장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준** 경하는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님, 그리고 이 대회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6회 연차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본인이 주최 기관을 대표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대회는 1986년부터 '원자력 진흥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출발하여 오늘날 국제적인 대회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오늘 국제 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각국의 지도자와 석학, 관련 기관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처럼 성황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해외 각국에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리차드 미저브(Richard A. Meserve)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님, 이브 르바스(Yves Le Bars) 프랑스 방사성폐기물관리청 청장님, 리 딘팡 중국핵공업집단공사 총경리님, 안젤리나 하워드(Angelina S. Howard) 미국 원자력에너지협회 부회장님, 구로다 아키오 일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부이사장님, 그 밖의 외국 인사 여러분에게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 후반부터 화석 연료 대체 에너지로서 지구 자원 보존에 크게 기여해 온 원자력 발전은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지구 환경 보전과 안전성 확보라는 범원자력계의 요망에 부응하는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명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 7위의 원전 운영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은 원자력이 인류 복지 생활의 향상과 경제 성장의 지속을 위하여 필수적인 에너지라는 인식하에 원자력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원자력 안전 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 원자력 산업계는 1977년 고리 1호기의 최초 원자력 발전의 송전 이래 23년만에 누계 원자력 발전량이 1조kWh를 돌파하여 원자력 개발의 새로운 전

66

이제 원자력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원자력 기술의

세계화와 함께 국제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이 길만이 21세기에 다시

원자력산업의 르네상스를 실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99

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업계 종사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말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은 1,370만 kW로서 전체 발전 설비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원자력 발전량은 1,089억kWh로서 총발전량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영광 5·6호기 및 울진 5·6호기의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며, 후속기인 신고리 및 신월성 원전에 대한 노형이 한국 표준형으로 최종 결정됨으로써 새로이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확정된 제5차 장기 전원 개발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현재 건설중인 4기를 포함하여 1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은 기존 원자력 발전 설비의 안전 운영과 적정 수준의 추가 건설을 통해 환경 규제 및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100만kW급 한국 표준형 경수로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높이는 설계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형 경수로 1400으로 명명된 140만kW급 차세대 원전 사업이 2010년 1호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축적된 국내 원전 운영 및 건설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업체들이 KEDO 경수로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참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12차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PBNC)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금년 9월에는 제7차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바야흐로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발전에 발맞추어 한국의 국제 원자력계에 대한 기여를 제고하고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계 원자력계는 공통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원자력 시설의 부지 확보난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산업의 경쟁 체제 확대에 따라 타에너지원인 천연 가스·석탄 등에 대응하는 경제성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원자력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 종사자 모두가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내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한국전력의 발전 부문이 6개의 자회사로 분할됨으로써 지난 4월 2일부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한국전력의 수력과 원자력 부문을 승계한 회사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세계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세계 원자력계 종사자 여러분.

전력 산업의 경쟁 체제 도입 등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 변화와 강화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이행은 원자력 발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원전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와 함께 원자력의 경쟁력 확보는 원자력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세계 원자력계의 지속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공동의 과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제 원자력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원자력 기술의 세계화와 함께 국제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이 길만이 21세기에 다시 원자력산업의 르네상스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전망 -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하여 오늘부터 2일간 개최되는 제16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자력학회 연차대회가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부흥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뜻깊은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멀리 외국에서 오신 참가자 여러분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봄이 무르익어가는 4월 중순의 우리 나라 자연을 만끽하시면서 원자력계 인산간의 교류는 물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준비위원과 관계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아울러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